

도심 속 숲길 따라 걷자

익산시가 도심 속 숲을 통해 일상 속 녹색 쉼터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단순한 나무 심기를 넘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총 42ha, 91곳에 도시·정원·복지 기능을 갖춘 특색 있는 도시숲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특색 있는 숲을 곳곳에 새롭게 선보였다. 우선 남부권 대표 숲인 유천생태습지에 1ha 규모의 정원형 도시숲이 새롭게 조성됐다. 낙우송과 메타세쿼이아, 억새 등 다양한 수종과 초화류를 식재해 생태하천과 숲이 어우러진 입체적 경관을 연출했다. 특히 이 숲은 2025 산림청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산림청장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황등면 석제품전시홍보관 일원에는 석재 전시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0.5ha 규모의 정원형 숲이 들어섰다. 실외 광장의 삭막함을 달고, 전시품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숲 경관이 시민과 방문객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내년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을 통해 0.3ha를 추가로 확장할 예정이다.

월성동 장애인 거주시설 ‘작은자매의 집’에는 녹색자금을 활용한 0.6ha 규모의 산림복지 나눔숲이 조성됐다.

이곳은 사계절 정원형 숲과 산책로로 구성돼, 중증장애인고 교령자 등 숲 체험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도 쉽게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숲을 익산시 제3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

유천생태습지, 산림청장상 전국적 녹색도시 모범 사례

황등 석제품전시홍보관 일원 정원형 숲 시민·방문객 호응

녹지축 연결 도심형 숲길 조성



시는 녹지축을 연결하는 도심형 숲길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화동 폐철도 부지에는 전라선 폐선 구간을 활용한 4ha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이 조성되고 있다. 이 숲은 나룻가 도시숲 단절 구간 200m를 연결해 춘포역까지 이어지는 ‘메타누리숲길’과 연계될 예정이다. 이 구간이 완공되면 총 7km에 달하는 도심 속 명품숲길이 완성된다.



여기에 오산면~송학동을 잇는 3.5km 오송누리숲길에는 올해 야간조명이 설치된다. 해당 구간은 이용객이 많아 야간 안전 조명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내년도에 도시 곳곳에 새로운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용제동 대간선수로 일원(2ha), 신흥공원(1.7ha), 인화동2가 대간선수로 일원

(0.7ha) 등에 기후 대응 도시숲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은 “숲이 일상이 되는 자연친화도시 익산을 목표로 시민 가까이에서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시 전체에 생태 녹지를 확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익산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 행정 강화에 나선다.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5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자원재활용 촉진 △폐기물 자원화 등 3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선 시는 시민이 깨끗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쓰레기 종량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영농폐기물 처리 등 사업에 올해 346억원을 투입해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시는 최근 생활 쓰레기 불법 배출 일제 단속을 통해 총 1,045건의 불법 배출을 적발하는 등 시민 의식 개선에 앞장섰다.

환경친화도시로 도약... 익산시, 청소행정 대전환

도시청결·자원재활용·폐기물 자원화 등 3대 과제 중심 행정력 집중
소각열·전력 판매로 연 130억원 수익... 순환형 청소 행정 본격화

특히 2024년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수해 폐기물 2,600톤을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처리하기도 했다. 농촌지역의 환경 보전에도 힘썼다. 슬레이트 철거 318동, 영농폐비닐·농약빈병 수거 보상금 지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등으로 농촌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재활용 확대에는 146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시는 투명페트병 189톤, 폐건전지 13톤, 종이팩 27톤을 수거하며 재활용률을 높였고, 공동주택 47개소에 음식물쓰레기 개별 계량장비를 교체·설치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했다. 다량배출사업장에도 감량기 설치를 지원하며 감량기반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신재생자원센터 전경 <사진=익산시청 제공>

아울러 학교·단체·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원 순환 실천 운동을 펼쳐 시민이 주도하는 재활용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다.

시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을 중심으로 한 자원화 사업을 본격 확대하고 있다. 단순한 폐기물 처리를 넘어,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활용한 순환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실제 소각열 판매, 소각열을 이용한 온수 공급, 전력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연평균 약 13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시의 재정 건전성 강화는 물론,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도시 실현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은 “청결한 환경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하는 지속 가능한 청소 행정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미래를 짓고 있습니다

누구나 찾고, 머물고, 살고 싶은 곳,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치를 높이고
당신의 꿈을 담아 전북의 미래를 짓습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